

 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	2024. 4. 25.(목)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농업기술원	보도자료 PRESS RELEASE	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	김승현	☎760-7601
		신기술보급팀장	김정훈	☎760-7641
		홍보담당자	김미리	☎760-7514
동영상(웹하드) : 있음 ☐ 없음 ☒		사진 : 있음 ☐ 없음 ☒		후속자료 : 없음

농업기술원 개발 만감류 신품종 현장교육장 조성

- 사업비 3억 원 투입해 표선면 세화1리 3,300㎡ 규모 마련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만감류에 대한 품종 이해를 높이고 현장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교육장을 조성한다.
- 2022년 기준 제주지역 만감류 재배면적은 4,162ha로 한라봉, 레드향, 천혜향 등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이 대부분이며 농업기술원 육성 품종은 8.2ha에 보급돼 있다.
- 이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신품종 확대 보급을 위해 동부지역 감귤 주산지인 표선면 세화1리에 비가림하우스 3,300㎡를 구축할 계획이다.
-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가을향, 우리향, 달코미, 설향 4개 품종을 심고, 농업인이 직접 품종별 특성을 관찰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장을 조성할 방침이다.
- 현장교육장 비가림하우스에는 보온커튼, 재해 예방용 난방기 및 환풍기, 병해충 자동방제기 등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장비와 빗물 이용을 위한 저수조 시설 설치 등에 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.
- 김정훈 신기술보급팀장은 “현장교육장을 통해 신품종에 대한

이해도를 높이면 현장 보급 확대로 이어질 것”이라며 “신 품종 만감류 묘목의 조기 성원화 기술 지도 등 교육장 조성 과 안정적인 운영에 노력하겠다” 고 말했다.

- 한편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가을향, 우리향, 달코미 등 3개 품종은 연내 수확이 가능하고 설향은 1월에 수확할 수 있다. 당도 13브릭스(° Bx) 이상, 산함량 1.0% 이하의 고품질 감귤로 새로운 소비시장 형성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.